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6(土) 맑음 -5/6℃ 7(日) 구름 많음 -4/9℃

단기 4343년 (음력 12월 2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94호 1판 2010년 2월 6일 토요일

포스코 광주 돔구장 포기

"반대여론 높고 수익성 없다"

광주시에 공식 통보 … 대구에는 제안서 제출

포스코건설이 광주 돔구장 건립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수준의 돔구장과 연계, 광주에 대규모 스포츠·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시는 5일, "포스코건설 측이 돔구장에 대한 지역여론 악화, 수익성 보장 미비, 경기 부진 지속 등을 이유로 들어 사업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 공문에서 "노후한 무등야구장을 대신하고, 연중이용이 가능한 문화스포츠 복합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돔구장 건설사업을 위해 분야별 전문용역업체와 3개월에 걸쳐 시설별 시장조사를 토대로 수요추정 및 분양 가능성 등 사업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측은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건설경기때문에 민간수익사업을 통한 돔구장 건설재원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시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및 발전방향과도 부합되지 않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건설은 애초 지난해 12월말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가 두 차례 기한을 연기했으며, 마지막 기한인 5일 오후 늦게서야 이 같은 방침을 시에 전했다. 포스코건설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광주와 함께 돔구장 사업과 관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구시에는 이날 오후 사업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시가 돔구장과 함께 민간자본 2조5천억원을 유치해 조성할 계획이었던 스포츠·레저·관광단지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포스코건설이 이날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8일 시민단체와 학계, 의회, 언론계에서 15명을 추천받아 '돔구장 건설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검토할 방침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공문으로 정식 입장을 전해온 만큼 입장을 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돔구장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지역 각계인사들로 '광주야구장 설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역여론을 수렴하면서 새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29일 포스코건설과 돔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만~3만5천석 규모의 돔구장 건설을 위해 제안서를 받아 공청회 등을 통해 돔구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설 제수용품 구입 북적 민족의 명절 설을 9일 앞둔 5일, 광주 서구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과, 배, 곶감 등의 제수용 과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과(부사)는 최상품의 경우 15kg 한 상자에 소비자가 6만~7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신고·15kg)는 5만원대 수준으로 거래되는 등 과일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결원이사 선임권 달라"

조선대 이사회 "교과부 불인정땐 전원 사퇴"

조선대 이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결원이사 선임권을 요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대 이사회는 5일 대학 이사장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결원이사 2명에 대한 선임을 대학 이사회가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교과부에 전달키로 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조선대는 교과부가 이사 선임 통보를 한 지난 1월 1일부터 정상화됐다"며 "따라서 교과부가 최근 결원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한 것과 관계없이, 2명 모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교과부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대 구성원의 뜻과 대립되는 결정이 날 경우 이사 전원이 사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강현욱 이사장과 강창원·이원구·김택민·남궁근·김용억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그러나 고(故) 박철웅씨 장녀인 박성숙 이사는 이사회 직전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등이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참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에 앞서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민주동우회, 1·8민주교수회 등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사 전원과 면담을 통해 옛 경영진 일가가 추천한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현 이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종전이사인 박성섭씨 등은 비리 등으로 인해 교과부가 이사 취임승인취소를 했던 만큼 이들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이사장은 "현 이사진의 구성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밝혀진다면 이사회 논의를 거쳐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中 왕자루이 내주 방북

북한 6자회담 복귀 주목

중국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르면 내주중 평양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왕 부장이 내주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매년 연초에 신년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례적인 방문으로 알고 있지만 6자회담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왕 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고,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천명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왕 부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동영 의원 민주 복당

6·2 지방선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확정

민주당 중앙위

지난해 4월 재보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10개월 만에 복당하게 됐다.

민주당 내에 상당한 지분과 조직을 가진 정 의원의 복당이 이뤄짐에 따라 정세균 대표와 친노·386 그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내 역학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는 5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 의원의 복당 신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정 의원의 복당은 10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복당 원서를 제출했으나 당권파 일부의 반발로 복당이 지연되자 지난 3일 "재보선 과정에서 많은 당원 동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은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다. 깊이 사과드린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에 돌아가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정 의원과 함께 복당 원서를 냈던 신 건, 유성엽 의원에 대해선 해당 지역구 문제 등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호남 무소속 3인방이 일괄 복당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6·2 지방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과 여성 의원 30% 이상 할당제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아이티 평화유지군 내주 파견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아이티 피해복구와 재건지원을 위한 평화유지활동(PKO)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유엔에서 빨리 파병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급적 신속하게 아이티에 PKO 병력을 파견할 방침"이라며 "국회 동의가 이뤄지면 다음주 중 파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PKO 부대는 공병 위주의 250명 이내 규모로 구성되며 주둔지 방어를 위한 특전사 및 의료 병력도 포함된다"면서 "우리 PKO 부대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레오간 지역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광주판 베토벤 바이러스 ▶3면
설 선물 알뜰하게 장만 ▶4면
공원탐방 - 중앙공원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동아시아 축구 개막 ▶14면